

박해시기 선교사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¹⁾

(저번 호에 이어)

[원문 110쪽]²⁾

(...)

저는 조선에서 순교한 신자들이 사형을 당했을 때나 사형을 당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의 조사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기적적인 것으로 보는 일들은 다음의 몇 가지뿐입니다.

충청도 황무실³⁾이라는 동네 출신의 박(박취득)⁴⁾ 라우렌시오는 이웃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매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을 받는 동안에 그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용감하게 고백하자고 함께 있던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관장과 포졸들이 신자들이 배교하도록 번갈아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을 때에,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자고 실 새 없이 말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꼭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취득) 라우렌시오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난 관장은 포졸들에게 “그가 죽기까지 매질하라”고 하였습니다. 100대쯤 맞았을 때에, 포졸들은 (박취득) 라우렌시오가 이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후에 (매를 맞았을 때에 누워있던) 라우렌시오는 한 대도 맞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활기찬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일에 놀란 포졸들에게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아무리 매를 맞아도 저는 죽지 않을 터이니, 저를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목을 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목을 졸라 죽였지만,) 라우렌시오가 죽었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권(MEP V.1260), ff.112~117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2) 원문 110쪽 : 이 서한은 편집 과정에서 잘못 정리되어 있다. 원문의 109~112쪽은 내용상 112쪽, 109쪽, 110쪽, 111쪽 순으로 배치해야 하며 113~117쪽은 순서가 맞다.

3) 황무실 : 현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지역이다.

4) 박취득 : 박취득 라우렌시오는 1799년 4월 3일(음력 2월 29일)에 홍주(현재 충남 홍성)에서 치명했다.

을 때에 있었거나 죽은 다음에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놀라운 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이(도기) 바오로⁵⁾라는 사람은 (56세의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지키도록 지시받은 포졸들은 밤중에 그 묘소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이(도기) 바오로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이 죽었으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분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묘소에서 나는 광채를 보았습니다” 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원문 111쪽]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보고서에 의하면, 박(취득) 라우렌시오가 죽기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목격한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목격자가 신자들인지 비신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세 명의 목격자를 알고 있거나 만나본 사람이거나 그 목격자들의 이름만이라도 들어 본 사람을 수소문해 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도기) 바오로에 관한 보고서에는, 이(도기) 바오로의 묘소에 났던 광채를 보았다고 한 사람들이 포졸들이라고만 전했습니다. 그 일들이 과연 있었다면, 불과 36년이나 3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막연한 이야기들을 아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 신자들 가운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을 목격했다고 하는 노인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노인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공경하을 감사명의 (브뤼기에르) 주교께서는 (강완숙) 골롬바라는 신자가 순교했을 때에 무슨 신비로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믿으셨었습니다. 그분께서 읽어보신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에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브뤼기에르 주교가 아니라 바로 모방 신부이다. 그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은 브뤼기에르 주교가 아니다. 전교회 연보 9권이나 브뤼기에르 주교의 보고서를 참고하라.]⁶⁾

첫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완숙) 골롬바의 이야기를 저술한 사람은 그녀가 처녀이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가 주문모 신부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강완숙) 골롬바는 어떤 비신자의 부인이었고 적어도 두 자녀, 아들과 딸의 어머니⁷⁾였습니다. 올해 (강완숙) 골롬바의 며느리에게 고해성사를 준 저는 (그 며느리로부터 확실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로, 이야기를 쓴 사람은 그녀의 머리가 베이자 그의 몸에서 젖이나 젖과 같은 흰색의 액체가 흘러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저에게 한 이야기에 의하면, (강완숙) 골롬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용감하게 바쳐 순교하였지만, 그 때에 어떤 기적적인 일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머리가 잘린 어떤 처녀의 머리카락에서 젖이나 젖과 같은 액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은

5) 이(도기) 바오로 : 이도기 바오로는 1798년 7월 24일(음력 6월 12일)에 충청도 청양에서 치명했다.

6)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 참고하라] : 원문 왼쪽 여백에 모방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메모했다.

7) 강완숙 골롬바의 두 자녀와 남편 : 남편은 홍지영이었고, 자식은 1남 1녀였다. 아들 홍필주 필립보는 전실의 자식이고, 홍순희 루치아는 친딸이었다

데, 그 처녀의 이름은 아가타⁸⁾라고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신부 여러분, 조선 천주교회의 유래와 (1801년도의 전국적인) 첫 박해 때까지의 현황이 요약하여 이상과 같습니다.

이 박해로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어도 전멸된 것이 아닙니다. 배교하는 신자들이 많았으나 고문이 너무 무서워서 배교한다는 말을 했어도 실제로는 배교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박해자들 앞으로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다는 말을 했어도, 거의 모두가 혼자 있을 때에나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평소에 했던 대로 신자로서의 의무들을 다했습니다. (박해가 가라앉고) 상황이 호전되자, (배교한다고 말했던 대부분의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후손들을 만나고 그들과 [원문 113쪽] 함께 박해의 후유증들을 치유하려 하였고 교회를 재건하려고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조선의 고유문자로 된 문건이나 서적을 인쇄하는 일은 금지된 셈이어서 한글 인쇄물을 내는 사람은 중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식한 사람들이 한자를 알고 무식한 사람들은 한글도 몰라서), 한글 인쇄물은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서나 그 밖의 교회서적들을 한글로 보급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줄을 아는) 신자들은 교리서와 (기도서와) 같은 교회서적들을 다량으로 (한글로) 베끼는 일에 착수했고, 그 결과로 조선의 신자들은 유럽의 착실한 신자들보다 더 많은 교회서적들을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여러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과거에 저에게 여러 번 해준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에 조선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일랜드 신자들처럼, 조선 신자들도 화려한 교회예식들을 좋아하지만, 화려한 교회예식에 참여하는 일보다 초보적이더라도 교리지식을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호전되자 조선의 신자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이 회장들의 직책은 제각기 사는 곳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교를 신봉하고 천주십계(天主十誡, 십계명)와 성교사규(聖敎四規)⁹⁾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신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살펴보는 일과 (비신자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여 개종하는 이들을 새 신자로 받아들이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조선의 천주교회가 박해 때에 입은 상처들이 아물어졌고, 7, 8년 전에 조선 신자들이 선교사제를 보내 주실 것을 교황님께 요청하는 편지에 명시한 대로 “조선의 신자 수는 (주문모 신부가 계시던 때만큼) 다시 되었던” 것입니다.¹⁰⁾

(교황에게 서한을 보낸) 같은 시기에 현재 국왕[현종]의 아버지[효명세자]가 심신이 불편한 아버지[순조]를 대리하여 왕권을 행사하였을 때에, 조선 남쪽의 가장 먼 전라도 지방의 모든 신자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

8) 아가타라고 한다 : 강완숙과 함께 잡힌 동정녀 모임 회장 윤점혜 아가타로 보인다. 그는 1801년 7월 4일(음력 5월 24일) 양근에서 참수형을 받아 치명했는데, 그녀의 목에서 흐른 피가 우윳빛이 나는 흰색이었다고 한다. 《달래교회사》 상권, 511~512쪽 참조.

9) 성교사규 : 천주교회가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네 가지 의무로, ① 모든 주일과 축일을 지키고 미사 참례할 것, ② 지정된 날에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 ③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을 것, ④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부활시기에 영성체 할 것들이다.

10) 7,8년 전에 … 것입니다 : 조선 신자들이 교황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1825년이므로, 모방 신부가 서한을 작성한 1836년보다 10여 년 이전의 일이다.

려서, 신자가 400명이나 체포되었습니다[1827년 정해년 군난]. 그 가운데 7명만 신앙을 굳게 지켰고 배교한다고 한 다른 이들은 곧 석방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킨 7명 가운데서 둘은 이미 옥사하였고 나머지 5명¹¹⁾은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선왕[순조]이 국왕으로서의 권력을 되찾았으나 박약한 심신 상태 때문에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와중에(왕은 심신이 박약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¹²⁾ 경기도에서 11명의 신자가 체포되었고, 이들 가운데 8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킨 3명 중에서 한 명은 이미 옥사하였고, 다른 한 명은 칼이라는 형틀을 여러 달 동안에 씌운 나머지 녹초가 되어 인생 마감을 곧 할 줄로 안답니다.

올해[1836]에는 두 지방[경기도 서울과 충청도]에서 2명의 가짜 예비신자가 포졸들에게 [원문 114쪽] 신자들을 믿고하였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서 3명의 여성신자와 5명의 예비신자를 믿고하였고, 다른 한 명은 충청도의 온양군에서 어느 동네의 모든 신자들을 믿고하였습니다. 그 신자들은 그곳 회장이 천주교 교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¹³⁾ 설명하는 것을 듣기 위해 밤중에 모여있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가운데 포졸들은 2명만 체포하고 온양 군수 앞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서울에서 체포된 여성 예비신자들 가운데서 한 명은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함께 갇혀 있던 세 명의 여성신자들¹⁴⁾이 받은 고통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박해자가 그 여신자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친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했는데, 저는 세 명의 신자에게 (얼마 전에)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그녀들이 모든 사실을 실토했다더라면, 저는 아마 이 시간에 천국에서 천주님과 성인들을 모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기회는 영원토록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훗날에 다시 주어지리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Jézégou) 로베르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11) 나머지 5명 : 신태보(申太甫) 베드로, 김태권(金太權) 베드로, 정태봉(鄭太奉) 바오로, 이일언(李日彦) 욥, 이성화[이대권](李大權) 베드로를 가리킨다. 이들은 1827년에 잡혀 전주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집행이 미루어져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1839년(기해) 5월 29일(음력 4월 17일)에 참수 치명했다.

12) 3년 전에 ... 세상을 떠났습니다 : 효명세자는 1827년 2월부터 대리청정을 하다가 1830년 5월에 급사했다. 이후 순조가 정사를 보다가 1834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왕위는 8세의 세손(헌종)이 이어받아 즉위했다.

13) 할 수 있는 데까지 : 잘 알지 못하는 pro posse의 의미를 추측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로 번역했다.

14) 세 명의 여성신자들 : 이 세 명의 신자들과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예비신자는 1836년 가을에 잡혔다가 1839년 5월 24일에 순교한 김아기 아가타, 김업이 막달레나, 이 아가타, 한아기 바르바라이다. 《달레교회사》 중권 336쪽, 415쪽.

110 3

Déclarer tous les chrétiens de les mettre à toute sorte de question et de les
torturer jusqu'à ce qu'ils eussent déclaré tout ce qu'on soupçonnoit qu'ils
avoient relatifement à la Religion chrest. le temps ne me permet de vous
les expliquer. le père le bon touche de compassion sur le cas d'ost. s'apercevant
qu'il n'y avoit par moyen de demeurer long temps caché fut lui-même en fait
de livrer entre les mains des ses futurrs bourreaux. tous les chrétiens en
age de puberté furent arrêtés et torturés. les confesseurs de la foi et les apostats
qui avoient eu une part spéciale dans la propagation de la foi furent massacrés

* deux baguettes les autres apostats condamnés à un exil perpétuel. le père le bon fut conduit
piqué dans le dos de 2 mille environ de schoul capitaine du royaume entre deux haies de soldats
les oreilles et armés de grands contrelards. arrivé au lieu du supplice un d'entre ces bourreaux
croisés du côté lui toucha la tête; je me suis informé de ce qui avoit été fait de son corps.

le chrétien ne le donna pas.
j'ai fait bien de enquêter sur ce qui s'étoit passé à la mort et après la
mort des chrétiens massacrés en force. voici les seuls faits que l'on m'a
rapportés comme miraculeux:

un nommé Laurent, natif originaire de Fouang nous il village de la province
de Tchong tching fut arrêté avec les chrétiens voisins et condamné
à passer sous les verges il souffrit ce supplice sans aucune plainte
encourageant les chrétiens à confesser généreusement le nom de J. ch. pendant
que les satellites et le mandarin cherchaient par leurs exhortations
et leurs menaces à le faire apostasier Laurent ne se permit de
leur rappeler les vérités éternelles et de les encourager à persévérer
fidèlement jusqu'à fin. le mandarin irrité par la conduite de Laurent
le condamna à périr sous les verges. il en avoit reçu une centaine de coups
et les bourreaux le croyoient mort. quelque temps après il se parut en aussi
bonne santé que s'il n'en eût reçu aucun coup. le satelite admirant ces
événements miraculeux, je ne puis périr sous les verges dit Laurent
mais vous pouvez m'être étranglé. on ne connoit aucun miracle opéré après
la mort de son intercession ni à son occasion;

Des satellites proposés pour garder le cadavre d'un nommé Paul y
mis à mort pour sa foi voyant pendant la nuit la fosse illuminée firent
surtout en avertir son épouse et lui dirent: ne t'afflige pas sur la mort de
ton mari; certainement son sort est heureux; nous avons vu la fosse toute
brillante de lumière.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21.190.18.182 at Saturday, September 14, 2019 9:36 AM

De la persécution et renouvelles la Religion chrétienne. L'imprimerie en Corée est généralement défendue sous de grieves peines, elle n'est d'ailleurs presque d'aucun usage. Cependant c'étoit en écriture coréenne qu'il falloit se pauder de nouveau les catechismes ou ableter de la doctrine chrétienne. ils se mirant ^à écrire et parvinrent à repandre dans chaque maison de fideles plus que l'on en trouve dans les maisons des vieux chrétiens d'Europe, bons chrétiens néanmoins il en est de la force comme plusieurs irlandois m'ont dit autrefois, qu'il en étoit de l'Irlande les chrétiens de Corée quoiqu'ils ne fussent amateurs des ceremonies ecclesiastiques, ^{delivray} ne pouvoient cependant se comparer les plus belles à la plus chétive instruction. lorsqu'ils le purent, ils choisirent une société de catechistes pour apprendre chacun dans sa contrée à professer la Religion chrétienne à pratiquer ^{les commandemens} de Dieu et de sa sainte Eglise et veiller sur la manière dont les chrétiens les observoient. en sus expliqua la doctrine et faire des proselytes. en peu de mots la manière dont ils reprirent les pertes de la persécution qu'ils renouvelerent la Religion et parvinrent au nombre où ils étoient il y a 70 ans lorsqu'ils demandèrent ^{de} prierent le Souverain pontife de leur envoyer un missionnaire.

à cette même époque le pere du roi actuel gouvernant pour son pere naturellement inepte, ordonna d'arreter tout les chrétiens de la prov. la plus méridionale appelée Kienkato. on en arreta dit-on 400. 7 seulement eurent le bonheur de confesser la foi et les autres furent apostasiés et furent remis en liberté. deux des confesseurs dont morte dans les prisons les autres cinq y souffrent encore.

il y a trois ans sous le gouvernement du roi ^{imbécille} rente dans la en possession de toutes ses prerogatives royales hormis la capacité de les faire valoir, ^{imbécille} (il est mort dans son ineptitude) 11 chrétiens furent arreter dans la province de Kiangkito. 8 apostasiés et furent remis en liberté. Un des trois confesseurs de la foi est mort dans la prison un autre epuise depuis plusieurs mois sous la cangue send la fin prochain. Cette année dans deux provinces deux fantômes de catechumenes on livra entre les mains des satellites l'un à Schoul capitale de

[원문 110쪽]²⁾

(저번 호에 이어)

J'ai fait bien des enquêtes sur ce qui s'était passé à la mort et après la mort des chrétiens massacrés en Corée. Voici les seuls faits que l'on m'a rapporté comme miraculeux.

Un nommé Laurent Pac, originaire de Houangmousil village de la province³⁾ de Tchong tching to, fut arrêté avec les chrétiens ses⁴⁾ voisins et condamné à passer sous les verges⁵⁾. Il souffrit ce supplice sans aucune plainte encourageant⁶⁾ les chrétiens à confesser généreusement le nom de Jésus Christ.⁷⁾ Pendant que les satellites et le mandarin cherchaient par leurs exhortations et leurs menaces à les faire apostasier, Laurent ne cessait de leur rappeler les vérités éternelles et de les encourager à persévérer fidèlement jusqu'à <la> fin. Le mandarin, irrité par la conduite de Laurent, le condamna à périr sous les verges. Il en avait reçu une centaine <de> coups et les bourreaux le croyaient mort. Quelque temps après, il reparut en aussi bonne santé que s'il n'eut reçu aucun coup. Les satellites admirant cet événement miraculeux, "je ne puis périr sous les verges, dit Laurent, mais vous pouvez m'étrangler." On ne connaît aucun miracle opéré après sa mort par son intercession ou à son occasion.

Des satellites préposés pour garder le cadavre d'un nommé Paul Y, mis à mort pour la foi, voyant pendant la nuit la fosse illuminée, furent en avertir son épouse et lui dirent : "Ne t'attriste pas sur la mort de ton mari, certainement son sort est heureux ; nous avons vu sa fosse toute brillante de lumière."

[원문 111쪽]

La certitude de ces faits ne⁸⁾ repose⁹⁾ que sur le témoignage d'un seul homme. Il dit dans sa

1) A-MEP V.1260, ff.109~117. 자필. 참고한 기존의 판독본은 《Monsieur Maubant, Lettres de 1832 à 1839 (2me Ed.)》, 지정환 신부, 2006, 이하 '지(2006)'. 원문과 대조하고 최세구(제제구) 신부의 교정과 코멘트를 반영하여 판독본을 만들었다. 원문 그대로 판독하되 다음의 원칙을 두었다. 1. 몇몇 단순한 철자오기와 예전의 표기는 현대어법에 맞게 고쳤다. 모방신부는 반과거의 어미 대부분과 일부 명사·동사어간에서 -ai- 대신 -oi-를 썼고, sc(현대 s)를 썼고, 악센트(특히 accent aigu)와 연결선을 안 쓴 경우가 많다. 예전 표기와 현대 표기가 혼용될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예전 표기 payen은 그대로 두었다. 2.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의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문자로 고쳤다. 모방 신부는 거의 대부분 소문자로 썼다. 3.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장부호(쉼표·마침표·물음표 등)를 삽입했다. 모방 신부는 특히 쉼표를 안 쓴 경우가 많다. 4. 문맥상 필요한 단어가 빠져있을 경우 <>괄호에 넣어 삽입했다. 5. 삭제 표시와 밑줄과 밑줄입표는 모두 원문을 따랐다. 6. 판독이 어려운 자리에는 글자수만큼 *표시를 했다. 7. 기존 판독과 언급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주를 달았다. 8. [] 괄호 안 내용은 모방신부의 글이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편집자의 삭제 제안 부분이다.

2) 원문 112쪽 : 이 서한은 편집 과정에서 잘못 정리되어 있다. 원문의 109~112쪽은 내용상 112쪽, 109쪽, 110쪽, 111쪽 순으로 배치해야 하며 113~117쪽은 순서가 맞다.

3) prov. 원문, 지(2006)

4) 행간 원문, 지(2006)

5) la verge 지(2006)

6) encour^{age}ant 원문, 지(2006)

7) J. ch. 원문, 지(2006)

relation que¹⁰⁾ trois hommes¹¹⁾ ont été témoins des événements arrivés à la mort de Laurent Pac ; mais on ne sait si ces témoins étaient chrétiens ou payens. Je n'ai pu trouver personne qui les ait vus, connus¹²⁾ ou même qui ait entendu nommer¹³⁾ leur nom. ~~Il dit~~ Le même et seul auteur ne ~~rapporte~~ parle que des satellites comme témoins de l'événement opéré sur la tombe de Paul Y. Cependant il n'y a que 36 ou 37 ans que ces faits ont dû avoir¹⁴⁾ lieu et il y a ici des chrétiens de tout âge.

Feu Mon très cher Seigneur de Capse avait cru qu'il s'était passé quelque chose de miraculeux à la mort ~~d'une femme nommée de Colombe~~ d'une chrétienne nommée Columbe¹⁵⁾. Je ne sais¹⁶⁾ quel est l'auteur de l'histoire coréenne que feu Mon très cher Seigneur avait lue, mais j'ai appris ici qu'elle renferma¹⁷⁾ une double erreur dans le récit de ce seul fait.¹⁸⁾ [C'est M. Maubant lui-même qui se trompe en attribuant ces erreurs à Mgr Bruguiere. Voir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¹⁹⁾ t.9 ou le rapport *** de Mgr Bruguière.]²⁰⁾ ~~Il dit~~ L'auteur met Columbe au rang des vierges. Or c'est un fait évident que cette femme nommée²¹⁾ Columbe, qu'il dit avoir donné l'hospitalité au père Tchou et qui la lui donna effectivement, fut épouse d'un gentil et mère au moins de deux enfants, un fils et une fille. J'ai entendu cette année la confession de ~~la fem~~ l'épouse de son fils. Il rapporte en outre que l'on vit couler du lait ou une liqueur semblable à du lait de son corps après sa mort. Les chrétiens m'ont rapporté que Columbe avait généreusement donné sa vie pour l'amour de Jésus Christ²²⁾, mais que l'on <n>avait remarqué aucun miracle à sa mort. On raconte qu'il sortit du lait ou une liqueur semblable à du lait de la tête ou du corps d'une vierge décapitée pour la foi. Cette vierge s'appellait Agathe.

Voilà, Messieurs et très chers confrères, l'abrégé des informations que j'ai pu recevoir sur l'origine et l'état de la Religion en Corée jusqu'à l'époque de la première²³⁾ persécution in facto.

Cette persécution fit une plaie profonde à la Religion, mais elle ne la détruisit pas. Presque tous les apostats n'avaient renié leur foi que par la crainte ou l'horreur des tourments. En présence des persécuteurs ils reniaient²⁴⁾ le nom de Jésus et dans leur particulier, hors le cas de danger, ils ne cessaient de l'invoquer et de remplir leurs devoirs de chrétiens accoutumés²⁵⁾ ~~auxquels ils étaient accoutumés avant d'apostasier~~. Dès qu'ils le purent, ils communiquèrent avec les enfants des martyrs et travaillèrent de concert à réparer les désastres [원문 113쪽] de la persécution et renouveler²⁶⁾ la Religion chrétienne. L'imprimerie de l'écriture coréenne²⁷⁾ ~~en Corée~~ est généralement défendue sous de graves peines, elle n'est d'ailleurs presque d'aucun usage. Cependant c'était en écriture coréenne qu'il fallait répandre de nouveau les catéchismes ou abrégés de la doctrine chrétienne. Ils se mirent donc²⁸⁾ à écrire et parvinrent à répandre dans chaque maison

8) 행간 원문, 지(2006)

9) repose~~nt~~ 원문, 지(2006)

10) 행간 원문, 지(2006)

11) 행간 원문, 지(2006)

12) vu, connu 원문, 지(2006)

13) nom~~mer~~ 원문, 지(2006)

14) dû avoir 행간 원문

15) 원문에서는 Colombe와 Columbe를 둘 다 썼고 지(2006)에서는 Colombe로 통일했다.

16) sçais 원문 ; sçai 지(2006)

17) renfermait 지(2006)

18) dans le récit de ce seul fait 원문, 지(2006)

19) V. ann. de la prop. de la foi 원문, 지(2006)

20) 다른 사람이 서한원문 왼쪽 여백에 썼다.

21) cette femme nommée 행간 원문, 지(2006)

22) J.ch. 원문, 지(2006)

23) p^{re} 원문, 지(2006)

24) renoient 원문 ; reniaient 지(2006)

25) 행간 원문, 지(2006)

26) renouveler 원문, 지(2006)

27) de l'écriture coréenne 행간 원문

28) 행간 원문, 지(2006)

de fidèles plus de livres²⁹⁾ que l'on en trouve dans les maisons des vieux chrétiens d'Europe, bon chrétiens néanmoins. Il en est de la Corée comme plusieurs irlandais m'ont dit autrefois, qu'il en était de l'Irlande. Les chrétiens de Corée, quoique je pense, amateurs des cérémonies ecclésiastiques, ~~n'y trouvent cependant~~ ne pourraient cependant comparer les plus belles à la plus chétive instruction. Lorsqu'ils le purent, ils choisirent une société de catéchistes pour apprendre chacun dans sa contrée à professer la Religion chrétienne, à pratiquer les commandements³⁰⁾ de Dieu et de l'Eglise et veiller sur la manière dont les chrétiens les observaient, en sus expliquer la doctrine et faire des prosélytes. C'est en peu de mots la manière dont ils réparèrent les pertes de la persécution, renouvelèrent la Religion et parvinrent au nombre où ils étaient il y a 7 ou³¹⁾ 8 ans lorsqu'ils ~~demandèrent~~ prièrent le Souverain pontife de leur envoyer un missionnaire.

A cette même époque, le père du roi actuel, gouvernant pour son père naturellement inepte³²⁾, ordonna d'arrêter tous les chrétiens de la province³³⁾ la plus méridionale appelée³⁴⁾ Kien la to³⁵⁾. On en arrêta dit-on 400. 7 seulement eurent le bonheur de confesser la foi et les autres ~~fure~~ apostasièrent et furent remis en liberté. Deux des confesseurs sont morts dans les prisons, les autres cinq y souffrent encore.

Il y a trois ans, sous le gouvernement du roi inepte imbécile³⁶⁾ rentré ~~dans~~ en possession de toutes ses prérogatives royales hormis la capacité de les faire valoir, (il est mort dans son imbécille ineptitude), 11 chrétiens furent arrêtés dans la province de Kiangkito. 8 apostasièrent et furent remis en liberté. Un des trois confesseurs de la foi est mort dans la prison ; un autre, épuisé depuis plusieurs mois sous la cangue, sent sa fin prochaine³⁷⁾.

³⁸⁾ Cette année dans deux provinces deux fantômes de catéchumènes ont³⁹⁾ livré entre les mains des satellites, l'un à Sehoul capitale du [원문 114쪽] royaume 3 chrétiennes et 5 catéchumènes, l'autre à Oniang, canton de la province de Tchong tching to, tous les chrétiens d'un village réunis la nuit pour entendre le catéchiste du lieu leur expliquer pro posse⁴⁰⁾ la doctrine chrétienne ; les satellites n'en arrêtaient que deux qu'ils traduisirent au mandarin du l***⁴¹⁾. Une des catéchumènes arrêtée à Sehoul demanda et reçut le baptême dans la prison et confessa sa foi dans les tourments avec les trois chrétiennes⁴²⁾ ses compagnes. Le persécuteur leur demanda qui leur avait enseigné la doctrine chrétienne, ~~si elles avaient découvert toute la vérité, les trois chrét~~ J'avais confessé les 3 chrétiennes. Si elles avaient découvert toute la vérité, je serais peut-être déjà avec le bon Dieu et Saints dans le paradis ; mais il faut espérer que ce qui est différé n'est pas perdu.

(다음 호에 계속)

(판독 · 번역 교정) 정혜정 / 본 연구소 연구원

29) de livre 행간 원문, 지(2006)

30) les commandements 행간 원문, 지(2006)

31) 행간 원문, 지(2006)

32) inapte 지(2006)

33) prov. 원문, 지(2006)

34) appelée 원문, 지(2006)

35) Kien la to 원문, 지(2006)

36) 행간 원문, 지(2006)

37) prochain^e 원문, 지(2006)

38) Dallet page 96 et suivantes 지(2006) 각주

39) on 원문, 지(2006)

40) propose 원문, 지(2006)

41) de là 지(2006)

42) chretien*** 원문 ; chrétiennes 지(2006)